

설명절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목 도 다 같 이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찬 송 221장(통일찬송가246장) 다 같 이

<나 가나안복지 귀한성에>

기쁨으로 찬양 46장(나 무엇과도 주님을)

기 도 가족 중에서 다 같 이

말 씬 나 눔 여호수아1:1-9(구약 p320) 인 도 자

찬 송 278장(통일찬송가220장)<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 같 이

기쁨으로 찬양 63장(나의 안에 거하라)

축복과 비전나눔 온가족이 함께

부모님들은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자녀들은 말씀안에서 자기의 비전을 말합니다

찬 송.....432장(통일찬송가 382장)<너 근심걱정말아라>.....다 같 이

기쁨으로 찬양 79장(내가 어둠속에서 헤멜 때에도)

마 침.....주기도문.....다 같 이

하나님의 자녀는 잘 되어야 합니다.(수1:1-9)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정복과 그땅을 분배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의 성패에 따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은 하나님나라의 확장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일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도 세상을 살면서 신앙으로 꼭 이뤄야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더 많이 누리고 갖고 쌓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단순한 성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기신 일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인정받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이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제대로 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성도는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 일을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되는 방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우선,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3절)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땅을 이스라엘백성들에게 주었다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려나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땅을 통해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백성들이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말은 한마디로 사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곤잘 눈앞의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살라고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묻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는 일은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도는 사명을 이룰 수 있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설명절을 맞아 온 집안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해 동안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가치 있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또하나,성도는 어떤 경우,어떤 일에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받은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그냥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면 위험합니다.

왜냐 약속은 쌍방간의 신뢰가 있어야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7절에 보면, “영토가 되리라, 함께 있을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등등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따라 실천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 순종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시게 됩니다. 성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깊은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닥쳐도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지 말라” 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흔들리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서 흔들리며 세상에 난무하는 이념

때문에 헛갈립니다. 그러니 성도로서 주님의 신뢰하며 사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온가족, 온가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일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3)하나더,성도가 잘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해야 합니다.(8절)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말씀을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마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말씀을 의식하지 못하면 자기 맘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은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성도의 주인이 되어야하고 말씀은 삶의 기준이 되어야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는 제대로 된 삶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현실에 집착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 열이면 아홉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성숙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말씀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말씀나눔을 정리해봅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잘되어야 합니다. 또 잘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온집안과 가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명절에 말씀나눔을 통해, 잘되는 성도의 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